

# 『요코 이야기』와 『떠나보낼 수 없는 세월』의 ‘기억’ 문제 비교 연구\*

박정애\*\*

## 차례

1. 들어가는 글 : 텍스트의 안과 밖
2. 기억과 대항기억
3. 인종 투쟁으로서의 기억 서사와 서사적 ‘완결’에의 욕망
4. 맺는 말 : 타자의 부름에 대한 응답의 책임

## 국문초록

일본계 미국인 요코 가와시마 윗킨스의 자전소설 『요코 이야기』는 2차대전 패전국 소녀의 고통만을 되살림으로써 영어권 청소년들에게 아시아에서의 역사적 가해자/피해자에 대한 전도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외 한민족 독자들의 분노를 촉발시킨 바 있다. 미국 『교사 가이드』에서 『요코 이야기』와 동시에 읽힐 것을 권장하고 있는 최숙렬의 『떠나보낼 수 없는 세월』은 요코와 비슷한 시대, 비슷한 나이의 소녀를 등장시켜 『요코 이야기』와 기억의 전쟁을 벌이는 일종의 대항소설이다.

윗킨스가 소설로 형상화한 자기 삶의 심상지리(imagined geographies)가 미국인들이 상상해온 태평양전쟁의 심상지리와 맞아떨어짐으로써 『요코 이야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구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7-332-A00117).

\*\* 강원대학교 문화예술대학 스토리텔링학과 조교수.

기』는 미국 교육제도가 인정하는 정전(正典)의 자리를 확보한다. 『요코 이야기』에서 전쟁이란 곧 진주만 이후의 태평양전쟁이다. 즉 일본이 러시아, 중국 등과 벌인 제국주의 전쟁, 조선을 식민지화하고 조선 항일세력을 말살하기 위해 벌인 수많은 전쟁은 『요코 이야기』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다. 최숙렬은 바로 그 지점에서 ‘기억의 전쟁’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 윗킨스와 미국이 보지 못하거나 드러내지 않는 한반도에서의 또 다른 전쟁을 증언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이야말로 역사 교사 최숙렬을 소설가로 탈바꿈시킨 원동력인 것이다. 최숙렬은 한반도에서의 식민지/피식민지, 가해/피해 사실을 열거하고 되새기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사람의 전형적인 심상지리를 직조한다. 그러나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는 최숙렬의 대항서사도 반공산주의(反共産主義), 미국에 대한 호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요코 이야기』와 다를 바 없다. 결국 윗킨스와 최숙렬, 두 아시아계 미국인 ‘모델 마이너리티’들이 호출하고 제작한 모범적이고 상식적인 텍스트인 이 작품들에는 ‘정의롭고 선한 미국’, ‘악의 기원 공산주의’라는 서사가 이미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다.

『요코 이야기』가 고집하는 서사적 ‘완결’에의 욕망은 적의 전쟁에 강제 동원되었던 조선인 성노예, 학도병과 같은 타자와 부조리한 사건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며, 진실이 작가가 재현한 현실 너머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용납하지 않는다. 내셔널 히스토리의 타자를 부인하는 것은 『떠나보낼 수 없는 세월』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요코 이야기』는 여전히 전쟁의 폭력을 현재의 서사로 살아가는 수많은 아시아인들의 부름과 호소에 대한 무책임한 응답이다. 『떠나보낼 수 없는 세월』 또한 기록치 않은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민족주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대항서사로서 여러 측면에서 『요코 이야기』의 한계를 닮아 있다.

핵심어 : 요코 가와시마 윗킨스, 요코 이야기, 최숙렬, 떠나보낼 수 없는 세월, 자전소설, 증언 욕망, 기억, 대항기억, 기억 서사, 민족주의, 피해자 내셔널리즘, 젠더, 타자, 책임

## 1. 들어가는 글 : 텍스트의 안과 밖

일본계 미국인 여성 요코 가와시마 윗킨스의 자전소설 『요코 이야기 *So far from the Bamboo Grove*』<sup>1)</sup>는 1986년 미국 ‘맥더걸 리텔(McDougal Littell)’사에서 출판된 이래 미국의 수많은 초등학교에서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문학동네’사에서 2005년에 번역, 출판하였고 2006년 말, 4쇄를 찍었다. 출판사는 책의 뒷표지에 “왜 일본과 중국에서 이 책의 출판이 금지되었나?”라는 카피를 사용하면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런데 2007년 초부터 미국 교포사회에서 이 책의 교재 사용에 반대하는 운동이 일기 시작하고 국내 언론사들이 그 사실을 앞 다퉈서 기사화하면서, 이 작품은 새삼스레 민족적 관심과 공분(公憤)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네티즌들의 항의가 빗발치는 바람에 인터넷 홈페이지가 다운되기까지 했던 ‘문학동네’사는 결국 책의 판매중지를 결정하고 해당 사태에 대한 입장<sup>2)</sup>을 발표했다.

국내외 한민족 독자들은, 2차 대전 패전국 소녀의 고통만을 되살림으로써 영어권 청소년들에게 아시아에서의 역사적 가해자/피해자에 대한

1) 『요코 이야기』는 주로 미국 동부지역 초등학교 6~8학년 언어 부문 교재로 사용되어왔다. 미국에서는 주정부 교재채택위원회나 지역교육위원회에서 복수의 교재를 추천하고 개별 학교의 담당교사들이 그 안에서 선택권을 가지는 방식으로 교재를 채택한다.

2) 『요코 이야기』 사태에 대한 문학동네의 입장'. [http://nownforever.co.kr/bbs/zboard.php?id=0\\_news&no=286](http://nownforever.co.kr/bbs/zboard.php?id=0_news&no=286)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우리는 ‘군복 입은 남자들’의 서사가 아니라 여성/어린이라는, 기존에 ‘발언권이 없었던 또 다른 존재들’의 반전 메시지에 주목했다. 2) 중국에서는 반일감정 때문에, 일본에서는 자국을 비판하는 내용 때문에 출판 금지된 소설을 동아시아에서 가장 극심한 수난을 겪은 한국에서 먼저 수용하는 일이 의미 있을 거라 판단했다. 3) 그러나 현 시점에서 제기되는바 작가의 부친이 731부대 고위간부였다는 의혹만큼은 체험의 절실함을 내세운 이 소설의 진정성을 크게 훼손한다고 보아 이 문제에 관한 만족스러운 해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책의 출간과 판매를 중단한다.

전도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작품에 대하여 분노를 표출했다. 또한 독자들은 작가 스스로 몇 가지 디테일을 제외하면 모두 ‘실화’라고 주장한 이 작품의 사실성에 대해서도 집요한 의문을 제기했는데, 그 의문점들 중에는 상당한 과학적·역사적 근거를 가진 것도 많아 보인다. 이를테면 소설에 적시된 주요 화소인 대나무 숲, 미군 폭격, 인민군에 대하여, 함경도 땅에 아열대 식물인 대나무 숲이 있을 리 없고, 해방 전 나남 지역에 미 공군의 폭격은 없었으며, 1948년 이전에는 인민군이 활동하지 않았다는 반론을 펼치는 것이다. 덧붙여 저자의 아버지가 단순히 만주 주재공무원이 아니라 악명 높은 731부대 소속 최고위급 장교라는 주장도 나왔는데, 이는 ‘문학동네’사가 해당 책 발매를 중지하는 직접적인 명분이 되었다.<sup>3)</sup>

이 책에 대한 교재 채택 반대운동은 현재진행형이며 그 결과는 언론에 의해 곧바로 기사화되고 있다. ‘한일, 연대 21’, ‘대안공간 풀’ 등의 단체와 ‘우리교육’, ‘창작과 비평’ 등의 잡지들도 다양한 관점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시켰다. ‘한일, 연대 21’에서는 만주, 일본인 처, 한국 작가의 귀환 이야기까지 포괄하여 가해/피해의 기억을 넘어선/둘러싼 담론을 구축하고자 했다. 그 중 캘리포니아 대학에 재직 중인 요네야마 리사 교수의

---

3) 이에 대한 저자의 반론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항수병에 걸린 어머니를 위해 아버지가 고향 아오모리의 노란 대나무를 구해다 심었는데 그것이 십 년여 자리를 잡아 조그마한 숲을 이루었다. (이 문제에 관하여 필자가 강원대학교 생약자원개발학과 정명근 교수에게 자문한 결과, ‘유전자원의 다양성이란 관점에서 함경도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 스스로 내동성(耐凍性)을 향상한 일본산 대나무가 있을 수 있다’는 답을 얻었다.) 2) 미군 비행기의 폭격은 없었으나 정찰 행위는 분명히 있었고 나는 학교운동장에서의 공습 대비 훈련 도중에 미군 비행기를 목격했다고 썼을 뿐이다. 3) ‘인민군’이라는 호칭은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인식 없이 사용했다. 피난길에 부닥뜨렸던 북한 민병대가 누구였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4) 부친은 군대에서 일한 적이 없고 남만주에서 공무원으로 복무했다. 731부대에서 의무소장으로 일했던 가와시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호적등본에 기재된 두 사람의 한자가 다르다. 2007년 2월 3일자 중앙일보 기사, 「‘요코 이야기’ 저자 일문일답」 참조.

논문, 『일본 식민지주의의 역사기억과 아시아계 미국인』은 『요코 이야기』 논쟁의 미국적 문맥을 고찰하고 있다. 요네야마는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의 미국화’라는 흥미로운 가설을 제기하면서, 아시아계 이민·시민에 의한 일본의 전쟁범죄나 식민지주의에 대한 성찰이 필리핀, 하와이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일으킨 미국의 침략과 군사폭력의 역사를 상기시키기 때문에 미국은 자국뿐만 아니라 일본의 식민지주의 전쟁 담론도 역사기억에서 소거한다고 본다. 식민지주의의 문제를 제외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은 ‘좋은 전쟁’이 되고 미국은 그 ‘좋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나라가 되는 내셔널 히스토리의 구도가 존재하는 바, 요네야마는 『요코 이야기』가 미국 주류사회에서 전쟁피해를 그린 책으로 선호되어온 이유의 일단을 거기서 찾는다. 즉 “이 책에 일본 식민지주의에 대한 자세한 서술이 결여되어 있는 것은 미국에 자국의 식민지 지배의 역사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과 공범관계에 있다”<sup>4)</sup>는 것이다.

진보적 미술단체인 ‘대안공간 풀’에서는 『요코 이야기, 외전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여성작가 기획전과 워크숍을 열었다. 『요코 이야기』가 가진 순진한 보편주의의 위험성을 적시하면서도 식민피지배 남성들의 분노에 내재된 편협한 민족주의의 위험성 또한 경계하는 ‘대안공간 풀’의 입장은, 여성의 피해와 고통의 역사를 동원하지 말고 온전히 들으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쪽이다. 인용하자면 “성적 위협을 경험한 여성들이 자기의 피해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 것으로 전범 국가의 국민이라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 여성들이 경험한 보복 강간은 그 자체로 성적 착취와 위협일 뿐이다. 여성의 성적 착취와 피해가 동원되어온 역사는 뿌리 깊지만, 여성의 성적 착취와 피해 경험을 늘 동원되는 것으로

4) 요네야마 리사, 『일본 식민지주의의 역사기억과 아시아계 미국인』, 『한일 역사인식 논쟁의 메타히스토리』, 뿌리와이파리, 2008, 341쪽.

내버려둘 수는 없다. 그 경험은 자체로 말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sup>5)</sup> 초등교사 이주영은 어린이문학으로서 이 작품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한다. 다른 연령대의 독자들과 달리 어린이들은 주인공에 대한 동일시 성향이 훨씬 강하고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명확히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작품이 교재로 사용되었을 때 또 다른 편견과 왜곡된 역사 지식을 갖게 할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sup>6)</sup> 그리고 저널리즘적으로 확대·재생산되는 논란의 전개방식을 경계하면서 “우리의 논의는 텍스트 자체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sup>7)</sup>라는 주장도 눈에 띈다. 문학평론가 손종업은 번역본과 원본을 세밀히 분석한 뒤, 소설 속 열두 살 소녀의 시선이 결국은 “패전 후 일본국민이 지니게 된 피해담론을 정교화하는 것일 뿐”<sup>8)</sup>이라 비판한다.

한편 『요코 이야기』를 둘러싼 엄청난 관심에 비하여 이 소설의 대척점에 서 있는, 한국계 미국인 작가 최숙렬의 자전소설 『떠나보낼 수 없는 세월 *Year of Impossible goodbyes*』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최숙렬의 작품은 요코와 비슷한 시대, 비슷한 나이의 소녀를 등장시켜 작가가 자신의 생존과 탈출의 체험을 증언케 한 일종의 대항소설이다. 국내 번역본 ‘웁긴이의 말’을 보면 “지은이는 어느 일본인이 쓴 글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그 글을 읽는 미국 청소년들이 1940, 50년대 한반도에서 일어난 비극의 진상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생각하면 지은이는 잠이 안 올 지경이었다고”, “그래서 지은이는 미국의

5) 『요코 이야기, 외전 만들기』 웹 사이트에서 인용. <http://lateralyk.egloos.com/1343048>.

6) 이주영, 『 역사를 다루는 어린이문학의 책무성』, 『우리교육』 2007년 3월호, 98~101쪽 참조.

7) 손종업, 『『요코 이야기』가 불편한 몇 가지 이유』, 『창작과 비평』 2007년 여름호, 343쪽.

8) 위의 글, 354쪽.

청소년들에게 해방 전후 한국의 역사와 그 역사 속에서 한국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려 주기 위해 이 소설을 쓰게 되었다고” 명기되어 있다. “어느 일본인이 쓴 글”이 『요코 이야기』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현재 세계 최대의 인터넷 서점인 아마존 등에서 『요코 이야기』와 『떠나보낼 수 없는 세월』은, ‘빈번히 함께 팔리는 책(Frequently Bought Together)’으로 묶여 판매되고 있으며<sup>9)</sup>, 1998년에 나온 미국 『교사 가이드 *the Teacher's Guide*』에서는 학생들에게 두 작품을 동시에 읽힐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요코 가와시마 윗킨스는 “그때 ‘나와 최 작가의 책이 하나로구나. 미국 아이들은 양쪽 사람들 이야기를 모두 배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다.”라며 미국 교육의 균형감을 치켜세운다.<sup>10)</sup>

살펴보았듯이 『요코 이야기』에 대한 논의는 저널의 기사와 비평에 치중되어 있고, 『떠나보낼 수 없는 세월』에 대해서는 저널리즘적 관심조차도 미미한 형편이다. 본고는 똑같이 소녀 화자를 내세워 개인적 체험을 반추함으로써 역사 기억을 직조하는 이 두 자전소설에 대한 연구의 시발(始發)로서 우선 ‘기억’의 문제를 비교·연구하고자 한다.

기억의 문제를 논의할 때, “우리가 먼저 인지해야 할 것은 폐허를 가져왔던 역사가 단일하거나 직선적이지 않다는 점이다.”<sup>11)</sup> 그리고 우리가

9) 독자층, 시공간적 배경과 플롯, 마케팅 포인트가 유사한 작품인지만 두 작품에 대한 미국 잡지들의 서평은 그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이를테면 『요코 이야기』에 대해서는, “전쟁의 참상 속에 내던져진 어린 소녀의 놀라운 생존기! 가족에 대한 사랑과 용기가 진한 공감을 이끌어낸다.”(칠드런스 리터러치), “실화에 바탕을 둔 경이로운 이야기”(퍼블리셔스 위클리) 등이 있고, 『떠나보낼 수 없는 세월』에 대해서는 “지은이의 체험에서 우리나라 이 소설은 어느 소녀의 놀라운 용기에 대한 감동적이고 진실한 이야기이다. 명료하고 우아한 산문으로 쓰여진 이 책은, 이처럼 부당한 세계에서 인간 정신의 위대한 승리를 보여줌으로써 독자들의 영혼을 고양시킨다.”(퍼블리셔스 위클리) 등이 있다.

10) 앞의 중앙일보 기사.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은, ‘누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목적을 위해’ 과거를 기억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본고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우선 한 시대에 대한 기억과 그 대항기억이 겹치고 엇갈리는 양상을 살필 것이다. 그리고 이 두 작품이 가지는 미국 사회에 대한 인정 투쟁으로서의 함의를 고찰하고 서사적 ‘완결’에의 욕망과 기억의 잉여 사이의 길항 관계를 밝혀보고자 한다.

## 2. 기억과 대항기억

### 2.1. U자형 서사와 역U자형 서사

『요코 이야기』와 『떠나보낼 수 없는 세월』은 시공간적 유사성을 가지고 전쟁의 참상에서 살아남은 소녀의 실화에 기반을 둔 소설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무력한 어린이의 시점을 취하고 있기에 전쟁이라는 극한적 국가폭력에 대하여 가장 비판적인 입지를 취하고 있고, 여성 화자이기에 성별화된(gendered) 전쟁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두 작품은 유사한 과거에 대한 하나의 기억과 그 기억에 대한 대항기억으로서 분명히 대립하고 있기도 한데, 『요코 이야기』가 전쟁이라는 지옥에서 살아남았음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자부심을 느끼는 식민종주국 소녀의 기억 서사라면, 『떠나보낼 수 없는 세월』은 그 여성의 기억 서사에 충격과 분노를 느낀 피식민지 소녀의 대항기억 서사인 것이다.

우선 자전/실화소설을 표방하는 두 작품의 기억이 어떤 지점에서 겹치고 엇갈리는지 두 작품의 줄거리를 대비해 보자.

11) 요네야마, 『폐허로부터-기억의 정치를 조명하며-』, 『민주주의와 인권』 제4권 1호, 108쪽.



표 1. 두 작품의 줄거리 비교

	『요코 이야기』	『떠나보낼 수 없는 세월』
1장	미쓰무라 하사로부터 가족 수배령 소식을 듣고 요코네 세 모녀가 대나무 숲이 있는 나남의 집을 떠남.	숙안이 마당가 소나무 아래에서 명상하는 할아버지 곁에 앉아 소나무 향내와 봄기운을 음미함.
2장	환지수송용 기차에서 인민군의 탐문 수색을 받지만 군의관과 간호원의 도움으로 들키지 않음.	느닷없이 들이닥친 나리타 순사장과 부하들이 공장직공 해원의 생일상에서 늦그릇들을 압수하고 할아버지의 소나무를 난도질함.
3장	노숙하던 숲에서 인민군에게 발각돼 강간 위협을 받음. 폭격으로 인민군이 즉사하고 요코는 귀와 가슴을 다침.	충격으로 몸져누운 할아버지가 어머니 숙안 남매에게 항일애국운동을 여러 배출한 집안의 숨은 내력을 말해주라 이름. 할아버지 사망.
4장	오빠 히데요가 인민군의 공격을 받아 죽을 고비를 넘기고 피란을 시작함.	나리타 순사장이 공장직공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끌고 가고 공장의 편직기도 압수해 버림.
5장	8월 16일, 천신만고 끝에 서울역에 도착하여 종전(終戰) 소식을 들음. 조선인들의 일본여성 강간 장면 목격. 부산에서도 끊임없이 강간 공포에 시달리다가 일본행 화물선을 탐.	나리타 순사장의 아내인 나리타 선생에게 걸린 숙안이 충격과 공포 속에 학교생활을 시작함. 학교는, 기미가요와 황국신민서사를 외우고 죽창 찌르기 연습을 하는 또 하나의 전쟁터임.
6장	히데요가 삼팔선 가까이 김씨네 농가 앞에서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 쓰러짐.	열병으로 드러누운 어머니를 위해 수녀원으로 약을 얻으러 갔던 기사 오빠가 꿈에 그리던 일본 패망 소식을 듣고 음.
7장	요코 일행이 후쿠오카 난민수용소에서 머물다가 교토로 감. 요코 자매가 기차역에서 노숙하며 명문 여학교에 입학함.	소련군과 열성 공산단원들이 장악한 마을에서 숙안네 식구들은 날마다 집단노동과 세뇌교육에 동원됨.
8장	어머니 사망. 요코 자매가 공장의 창고 이층에서 자취를 시작함.	월남을 하려다 엄마가 검문소에서 소련군에게 붙잡힘. 엄마와 헤어진 숙안 남매가 공포와 외로움, 추위, 배고픔과 싸움.
9장	언니는 구두닦이를 하고 요코는 언니가 만든 형겔 소품을 팔며 곳곳하게 살아감.	엄마를 찾으려는 숙안 남매의 시도가 모두 실패함.
10장	요코가 아사히신문사 수필 현상공모에 당선. 수필을 읽은 미쓰무라 하사와 연락이 닿아 극적으로 재회함.	기차역 청소부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철로 반대편으로 넘어간 숙안 남매가 소련군의 탐조등 불빛을 피해 산을 넘고 철교를 건너 마침내 삼팔선을 넘음.
11장	김씨네 농가에서 해를 넘긴 히데요가 이	

	듬해 봄에 월남하여 난민 신청서를 내고 부산을 거쳐 독일함.	
12장	종업식을 하고 전 과목에서 최고 점수를 받는 요코. 그날 저녁을 짓다가 마침내 돌아온 오빠 히데요와 눈물로 상봉함.	

표에서 알 수 있듯, 『요코 이야기』는 1장에서 6장까지의 전반부는 여자 셋으로 이루어진 전재민(戰災民) 가족의 피란기로, 7장에서 12장에 이르는 후반부는 그들의 귀국 적응기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부의 시간적 배경은 일본의 패색이 짙어가던 1945년이다. 요코네는 오빠 히데요마저 학도병으로 자원하는 바람에 남자 구성원 없이 여자들만 집에 남아 불안한 나날을 보낸다. 그러던 어느 날, 요코네와 친하게 지내던 마쓰무라 하사가 집으로 찾아와 당장 피란할 것을 강권한다.

“히데요는 토요일까지 못 와요. 개가 없는데 어떻게 떠난단 말이에요!”

“그만큼 급한 일이라 저도 있는 힘을 다해 달려온 겁니다. 러시아 군인들이 상륙했다니까요. 그들이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여러분을 찾고 있던 말입니다. 잡히면 다 죽을지도 몰라요.”

“왜요?”

“남편분 때문이지요. 만주에서 일본 정부를 위해 일하고 계시니까요.”<sup>12)</sup>

인용문은, 7월 29일 자정 무렵, 마쓰무라 하사와 요코 어머니가 주고받은 대화이다. 마쓰무라 하사의 말대로 요코네는 환자수송용 열차를 얻어 타고 가다 원산 기차역에서 전범 가와시마의 가족을 찾는 인민군의 삼엄한 탐문 수색을 받지만, 군의관과 간호원의 도움으로 겨우 체포를 면한다. 서사적 긴박감을 점증시키는 이런 식의 에피소드들은, 동아시아의

12) 요코 가와시마 윌킨스, 『요코 이야기』, 윤현주 역, 문학동네, 2006, 46쪽. 다음 인용문부터는 쪽수만 명기함.

역사적 문맥을 모르는 미국 학생들에게 요코네 가족을 공산주의 러시아의 폄박을 받는 죄 없는 민간인으로 규정하게 하고 동정적 감정이입을 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반면 이런 소설을 읽으면서 한일간의 역사에 관한 집단기억을 소거할 수 없는 한민족 독자들로서는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를테면 그 혼란스러운 시절에 단지 아버지가 만주국 고위 관리라는 이유만으로 러시아군에다 인민군<sup>13)</sup>까지 나서서 그 가족을 긴급 수색했을까. 만약 그렇다면 요코의 아버지는 일본 정부의 정책 결정권에 근접한, 정말로 대단한 거물급 전범이 아니었을까. 그게 아니라면 작가가 소설적 긴장을 증폭시키기 위해 거짓말을 꾸며낸 것이 아닌가. 요코의 아버지가 핵심 전범일 경우, 요코의 가족을 전쟁피해자로 규정하기 힘들어지고, 작가가 그야말로 허구적 이야기를 창조해냈을 경우, 실화소설임을 내세운 작품의 진정성이 의심스러워지는 형국이다. 영문판 『요코 이야기』의 뒤쪽에 실린 편집자 노트를 보면, 요코의 아버지 가와시마는 시베리아 감옥에서 6년을 복역한 후에 출소했다고 한다. 한국판 『요코 이야기』는 가와시마의 정치색이 분명해지는 그런 정보를 책에서 누락시킨다. 대신, 옴긴이의 말을 통해 요코 가와시마 윗킨스가 옴긴이에게 보내왔다는 편지를 소개하는데, 거기서 요코의 아버지는 일본정부의 조선어 말살, 창씨개명 정책 등에 반대하여 한국문화와 한국인들을 존중했다는 이유로 6개월 징역형까지 산 ‘정치범’이자 자식들에게 늘 인권의 소중함을 가르친 휴머니스트로 그려진다. 그 시대에 일본정부의 정치범/휴머니스트이면서 동시에 고위관리/핵심 전범인 어떤 인물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요코 이야기』의 속편으로 『우리 오빠, 언니, 그리고 나』를 썼을 정도로 가족 이야기에 특별한 애정을 보이는 이 작가가 자기 아버지에 대해 보이는 이러한 분열과 낭만화는 일본의

13) 사실상 그 시점에 ‘인민군’이라는 명칭의 조선인 군대는 존재하지 않았다.

전쟁범죄에 대한 작가의 분열적 인식과 낭만화와의 상통한다. 말하자면 요코는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염원하면서도 마쓰무라 하사와 이별할 때에는 ‘조국의 승리’라고 쓴 붓글씨 한 점을 선물로 준다. 조국의 승리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물음은 어디에도 없다.

마쓰무라와 헤어진 세 모녀는 급히 피란 보따리를 꾸려서 나남의 대숲이 있는 정든 집을 떠난다. 이 대숲 집은 요코의 안락하고 평화로운 유년 시절을 상징하는 장소이다. 『요코 이야기』의 원제인 ‘*So far from the Bamboo Grove*’를 그대로 번역하면 ‘대숲으로부터 너무나 멀리’가 된다. 요코는 대숲 집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어린 소녀에게는 가혹하기 그지없는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성장소설은 주인공이 안락한 유년의 집을 떠나 호된 시련에 노출되면서 시작한다. 그런 의미에서 『요코 이야기』도 보편적 성장소설의 구조를 충실히 따르고 있는 셈이다. 미국 독자들이 그렇듯 ‘보편성’으로 읽을 이 ‘집 떠남’에 대하여 한민족 독자들은 불편한 ‘구체성’을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집은 왜 일본 아오모리에 있지 않고 우리나라 나남에 있는가. 그들의 안락과 평화는 무엇을 대가로 얻은 것인가. 애초에 남의 것을 빼앗았다는 이야기는 왜 하지 않는가. 이 ‘구체성’이 서사 안에서 해명되지 않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나남을 떠나는 기차 안에서 “조금만 지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갈 거지요, 어머니?”(63쪽)라고 요코가 친진스레 묻고 어머니가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에서 영어권 독자가 느낄 법한 감동과 슬픔을 한민족 독자가 공유하기란 무척 힘든 일이다.

『요코 이야기』가 몰락한 주인공이 시련을 겪은 후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는 전형적인 U자형 서사라면, 『떠나보낼 수 없는 세월』은 그 반대인 역U자형의 이야기 구조를 보인다. 이것은 이 시대 급박했던 동아시아 역사의 행로가 요코와 숙안, 두 소녀에게 상반된 운명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즉, 요코가 마쓰무라 하사에게 준 붓글씨의 내용인 ‘조국의 승리’가

허사로 돌아가면서 요코의 삶은 하강을 거듭하지만, 『떠나보낼 수 없는 세월』의 주인공 숙안은 바로 그 일제의 패망으로 인해 최고의 행복을 맛보는 것이다. 나리타 순사장의 만행에 충격을 받아 집안의 정신적 지주인 할아버지가 별세하고 뒤이어 공장직공 아가씨들이 군 위안부로 강제 동원된 뒤 어머니의 건강마저 위태로워지는 등 소설 중반부까지 설상가상의 형국으로 진행되던 숙안네 가족의 절망과 불행은, 수녀원으로 약을 얻으러 갔던 기사 오빠가 일본 패망 소식을 듣고 오면서 순식간에 희망과 기쁨으로 바뀐다. 식구들은 마당에 꽃씨를 뿌리고 한복을 꺼내 입는다. 그러나 그 꿀맛 같은 한때는 소련군이 진주하여 부녀자를 겁탈하고 물건을 훔쳐가면서 어느새 사라지고 만다. 소련군과 열성 공산단원들이 장악한 마을에서 숙안네 식구들은 당원의 지시에 따라 날마다 집단노동과 세뇌교육에 동원된다. 일 년의 세월이 그렇게 흘러간다. 공산당은 숙안 남매를 비롯한 어린이들에게 자기 가족까지 의심하고 고발하라고 부추긴다. 그러던 중 10월의 스산한 밤, 기사 오빠가 와서 오랫동안 소식을 몰랐던 아버지를 만난 이야기를 해주며, 숙안 남매와 엄마에게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해 두라고 한다. 아버지의 서울 주소를 외운 숙안 남매와 엄마는 월남 안내인을 따라 길을 나서지만, 그 안내인은 소련의 이중첩자이다. 엄마는 검문소에서 소련군에게 붙잡히고 엄마와 헤어진 숙안 남매는 공포와 외로움, 추위, 배고픔과 싸운다. 숙안 남매는 결국 엄마를 찾지 못한 채, 기차역 청소부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철로 반대편으로 넘어간다. 소련군의 탐조등 불빛을 피해 산을 넘고 철교를 건너 마침내 삼팔선을 넘은 두 아이는 일순 다리가 풀려 쓰러진다. 들것에 실린 숙안의 귀에 한 아주머니의 말이 들린다. “이 어린것들이……, 두 아이가…… 애들 다리 좀 봐. 빨리 가자, 빨리.”<sup>14)</sup> 조국 해방 소식으로 희망과 행복감

14) 최숙렬, 『떠나보낼 수 없는 세월』, 다섯수레, 2006, 248쪽. 다음 인용문부터는 쪽수

에 부풀었던 한때가 역U자형의 정점을 차지한다면, 이 소설의 후반부는 소련 군정 치하의 암울한 삶으로 인해 지속적인 하강 곡선을 그리다가 엄마와의 예기치 못한 이별 지점에서 절망의 바닥을 찍는다. 물론 결말 부분은 두 아이의 월남 성공으로 상승에의 강력한 암시를 남겨둠으로써 최후에는 반드시 희망을 전해야 하는 아동소설다운 면모를 보여준다.

## 2.2. 피해자 내셔널리즘의 기억 전쟁

대부분의 신문, 잡지, 방송, 블로그 등이 『요코 이야기』 논란을 한일간 역사 인식의 충돌로 바라보는 가운데, 비교역사학자 임지현은 예외적으로 ‘피해자 내셔널리즘(Victimhood nationalism)’의 문제를 제기한다.<sup>15)</sup> 줄거리에서 드러나듯, 윗킨스의 기억 서사는 거의 절대적으로 전쟁 피해자의 관점에 치우쳐 있다. 요네야마는 스스로를 피해자로 자리매김하는 일본 반핵평화운동 진영의 입장이 역설적으로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의 역사와 과오에 대한 기억상실을 조성했다”<sup>16)</sup>고 말한다. 반핵평화운동가로 활동해온 윗킨스의 기억 서사에도 피해자의 기억만을 선택하고 가해자의 기억은 망각하는 일본식 ‘피해자 내셔널리즘’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전쟁피해의 기억 문제와 관련하여 요네야마 교수는 “최소한 원폭 당시 사망한 사람들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조선인 희생자들을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가”<sup>17)</sup>라고 묻는다. 일본인과 똑같이 원폭의 희생자이면서 동시에 적의 전쟁에 동원되어 적의 적(우방)으로부터 적으로 취급당해 죽은 조선인 희생자들을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요코 이야기』

---

만 명기함.

15) 2007년 4월 9일자 The Korea Herald 기사, 「Victimhood nationalism : compelling or competing?」

16) 요네야마, 앞의 글, 109~110쪽.

17) 위의 글, 112쪽.

에 대하여 한민족 독자가 가질 수밖에 없는 복잡하고 불편한 감정의 본질을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 내셔널리즘의 함정에는 윗킨스만 빠진 것이 아니다. 열두 살짜리 소녀가 귀환 길에 감당해야만 했던 고통에 대한 휴머니즘적·상식적 공감마저 인정하지 않는 독자들 또한 자기의 피해에 눈이 멀어 타자의 고통을 지워버리는 피해자 내셔널리즘에 빠져 있는 것이다. 임지현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진보든 보수든 간에 윗킨스가 말하고자 하는 귀환 체험의 개인적 고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대신 그들은 윗킨스의 기억 서사에서 사료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일본군의 잔학상에 대해 말하는 일본군 위안부들의 증언이 문서로 된 사료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재고할 가치가 없다고 보는 일본 우익의 실증주의적 태도와 매우 흡사하다. 모든 일본인이 가해자이고 모든 한국인은 피해자라는 이항대립적 사고는 일본인이 피해자일 수 있고 한국인이 가해자일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용납하지 않는다.

식민지 피해국 독자/작가의 대항서사인 『떠나보낼 수 없는 세월』 또한 『요코 이야기』와 동전의 양면 같은 피해자 내셔널리즘의 욕망을 분유(分有)하고 있다. 그 치열한 기억 전쟁의 양상을 살펴보자.

표 2. 기억의 키워드 비교

『요코 이야기』	키워드	『떠나보낼 수 없는 세월』 <sup>1</sup>
아오모리와 나남의 집을 둘러싼, 안락한 유년의 상징으로서의 대나무 숲	나무	할아버지의 분신으로서의 소나무
당근과 두부 요리가 사흘 연달아 나오자 반찬 투정을 함.	식사	누런 기장떡뿐인 형편없는 밥상
다도, 무용, 서예, 꽃꽂이 등 버거운 과외 활동으로 바쁜 요코	생활	나리타 순사장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고사리 손이나마 공장 일을 돕느라 놀 틈이 없는 숙안
만주국 고위공무원인 아버지	아버지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아버지

자원(自願) 학도병 오빠	오빠	강제 징용 간 오빠들
착한 조선인	친일파	일본인보다 더 나쁜, 민족의 배신자
조선인 남성들의 끊임없는 강간 위협	성폭력	공장 직공 아가씨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동원
조국의 패망이 가져온 절망과 폐허	종전 (終戰)	조국의 해방이자 부재하는 가족들의 귀환에 대한 희망
조선인들의 보복행위에 시달린 귀환 길	보복	종전 후에도 치안을 담당한 일본 경찰에게 해코지 당하는 조선인
역사적 배경이 소거된 '보편적' 수난 이야기	역사의식	일본과 조선의 역사, 일제의 양민 학살, 할아버지와 아버지 등 조선인 저항세력에 대한 일제의 잔악한 고문 소개

우선 ‘나무’의 기억 표상을 보면, 요코의 나남 집에는 일본의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대나무 숲이 있고, 숙안의 집에는 한민족의 정기를 상징하는 소나무가 있다. 나리타 순사장의 명령을 받은 조선인 순사들이 이 소나무를 베어버리자, 마치 소나무와 영혼의 교감을 느끼는 듯싶던 숙안의 할아버지도 앓아누웠다가 별세한다.

두 번째, 윗킨스는 소설 초반부에 전시의 열악한 식생활 형편을 소개하며 상황 파악을 못하고 반찬 투정을 일삼는 요코의 어린이다운 순진무구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열악함에도 등급이 있다. 쌀, 채소, 생선 등을 배급받는 일본 고위공무원 가족의 식생활은, 오래도록 밥 구경이랴곤 못한 채 누런 기장떡으로 식사를 대신하는 숙안네 집의 초라한 밥상과 비교할 수 없다. 요코가 당근과 두부 요리만 먹는다고 반찬 투정을 할 때, 기장떡이나마 배불리 먹기를 소원하는 숙안과 인춘 남매는 반찬 투정 같은 것을 상상도 하지 못한다.

세 번째로, 요코가 다도(茶道), 꽃꽂이, 시 짓기, 독서, 일본 전통무용 등 갖가지 과외활동을 하느라 바쁘다고 불평할 때, 숙안과 인춘 남매는 양말 공장의 잡무와 집안일 등 어른의 일을 끊임없이 도와야 하는 탓에



놀 시간이 거의 없다. 나남 집에서의 요코가 조금 힘들긴 해도 유년을 누리고 있었다면, 숙안 남매는 유년을 잃어버린 채 너무 일찍 철이 들어야 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부재하는 남자들은 식민지 종주국과 피해국 국민의 상황성(situatedness)을 대표한다. 요코의 아버지는 일제가 세운 괴뢰정부 만주국의 고위공무원이고 숙안의 아버지는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항일투사이다. 그리고 요코의 오빠 히데요는 왜곡된 영웅 심리의 발로일지언정 자원하여 학도병으로 입대하고 숙안의 세 오빠는 일제의 강제 징용에 끌려갔다.

여섯 번째, 요코네 집안사람들에게 조선인 친일파가 굶은일을 도맡아 해주고 온갖 편의를 보여주는 너무나 충직하고 선량한 사람들로 인식되는 데 비해, 숙안네 집안사람들에게 친일파는 같은 동포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감정까지 실려 일본인보다 더 밋고 경멸스러운 존재로 묘사된다.

다음 인용문에서 히데요의 입을 빌려 서술되는 조선인 친일파의 모습을 찾아보자.

“방법이 하나 있어. 우리 식구랑 친하게 지냈던 이씨 아저씨네 집으로 가는 거야. 몇 년 동안이나 우리 집에서 성실하게 일을 해준 분들이거든. 조선 사람이긴 하지만 공산당은 아니야. 틀림없이 우리에게 옷을 빌려줄 거야.” …(중략)…

오빠가 울부짖었다.

“나쁜 놈들! 우리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값진 물건을 다 훔쳐갔어. 이제 선량한 사람들까지 모조리 학살하고 있잖아!”(109쪽)

히데요가 말하는 ‘나쁜 놈들’이란 친일파에게 보복한 조선인들이고 ‘선량한 사람들’은 ‘몇 년 동안이나 우리 집에서 성실하게 일을 해준’ 친일파

를 가리킨다. 반면, 『떠나보낼 수 없는 세월』에서 친일파는 이런 식으로 서술된다.

이모 말이 맞았다. 그날 오후 일본인에게 혼란받은 젊은 조선인 순사 두 명이 왔다. 그리고 엄마에게 우리 집 소나무를 베겠다고 말했다. 호랑이 이모는 경멸조로 중얼거렸다.

“친일파!”

일본에 붙어먹은 민족 반역자라는 뜻이다. (52쪽)

일곱 번째, 성폭력 기억은 한민족 독자, 특히 남성들을 가장 많이 자극한 부분이다. 폭격을 맞은 열차에서 내려 철로를 이정포 삼아 서울로 향하던 세 모녀는 인민군 세 명에게 발각되어 강간 위협을 받는다. 때마침 지나가던 비행기가 폭탄을 떨어뜨려 인민군은 즉사하고 요코는 귀와 가슴에 상처를 입는다. 요코 자매는 죽은 인민군의 군복을 벗겨 입고 머리 털까지 짧게 밀어 남자처럼 보이도록 한다. 서울역에서 5주 가량 노숙하며 오빠를 기다릴 때에도 요코 자매는 조선인 남성들의 일본인 여성 강간 장면을 목격하고 공포에 질린다. 부산에서 일본행 화물선을 기다리면서는 남자 흉내를 내기 위해 변소에서 서서 오줌을 누다. 이렇듯 요코와 코 자매가 귀국 행로에서 수시로 조선인 남성들에게서 강간 위협을 받았다면, 숙안네 양말 공장의 직공 아가씨들은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동원된다. 위안부 동원을 피하기 위해 숙안네 식구들과 아가씨들이 갖은 노력을 다하지만 잔인한 나리타 순사장은 결국 아가씨들을 강제로 트럭에 태워 어딘가로 실어가 버린다.

『요코 이야기』를 다룬 신문기사의 제목이 “한국인들이 일본 부녀자를 강간했다?”<sup>18)</sup>라는 데에서 단박에 드러나듯, 요코 가족의 수난 이야기에

18) 아시아투데이, 2008년 10월 23일자 기사 제목.

대해 한민족 독자들이 느끼는 민족주의적 공분의 핵심은 식민종주국 여성이 감히 식민피자배 남성들의 죄를 들먹였다는 사실에 있다. 그러나 패망 후 귀국길에서 일본인 여성들이 헤아릴 수 없는 성폭행 위협에 노출되었다는 것은 그 시대를 다룬 한국문학 작품에도 종종 등장하는 삽화이다. 다음은 해방 뒤 소련 군정 치하 북한 형무소의 광경을 그린 한국소설의 일부이다.

“배고픈 건 그래도 좀 낫ديو. 여자 시장기야 어디 그랬습데까. 몸이 마구 비비 꼬여가지군 똑 죽을 것만 같은 걸. 이거야 어디 살겠습데까, 그냥 꼭 죽고 말아두 시원치 않은 걸.”

한바탕 감방 안을 떠들썩 들쳐놓고서 중년 남자는 자기 아내가 곁에 있더라도 한 것처럼,

“쌍년 같으니라구, 우리 조선사람을 못살게 굴던 왜놈의 계집년을 좀 해 먹었음 어땠단 말이야?”

『네 잉년아』를 소리소리 쳤다.

그의 이야기는 자기 집에 든, 일을 거들어주려고 온 일녀(日女)를 범했다는 것이다. 그날 외출에서 돌아온 그가 대문 안에 들어선즉 일녀가 마당에서 분탄을 주물러 빗고 있더라는 것이다. 그는 두말없이 일녀의 털미를 잡아끌고 광속으로 들어갔다. 한창 고비에 이르렀을 때 그 기미를 눈치챈 아내가 광문을 열었다. 그는 옷을 바로 입을 새도 없이 아내에게 끌려 적위대까지 갔다는 것이다.

“그땐 일녀라면 얼마든지 해먹을 수 있었ديو. 온갖 걸 죄다 뺏기고 고국엔 아직 돌아갈 형편이 못되디, 허디에 떠돌아다니게 되자니께 배는 고프ديو. 한 그릇 밥에두 이랏샤이, 이랏샤이(오십시오, 오십시오) 할 판인데 그걸 못해먹다니 말이 됩네까.”

중년 남자는 이 이야기를 하고 또 했다. 이야기로써 시장기를 채우려드는지 몰랐다.<sup>19)</sup>

19) 최정희, 『인간사』, 『정통한국문학대계』, 어문각, 1996, 154쪽.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멸절한 내 나라에서 사는 오늘날의 여성들도 수시로 느끼는 성폭력 위협을 그 시절의 피난길 일본인 여성이 절절히 체감하지 않았을 리 없다. 더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몸이 “남성 명예의 저장소이자 영토, 혈통의 상징으로 간주되어 남성 집단 간 전쟁터”<sup>20)</sup>가 되어온 역사를 감안할 때, 그 시절의 성폭행은 인간성에 대한 범죄로 인지되기는커녕 식민지 피해국이 가해국에 가하는 정당한 보복행위로까지 승격되었을 법하다. 기실 이런 사정은 해방 후에도 달라지지 않아서, 1965년에 출판된 남정현의 소설 『분지』는, 어머니가 미군에게 강간당하고 여동생이 미군과 동거하는 현실에 분노하여 미군병사의 부인을 강간하는 주인공을 홍길동의 10대 후손으로서 민족적 자존심을 지키고 정의를 구현하는 인물인 것처럼 그리고 있다. 2002년에는 두 여중생이 미군 트럭에 치여 숨진 사건에 민족적 울분을 느낀 ‘애국청년’이 미국 대통령 영부인과 군 사령관 부인을 성노예로 만듦으로써 복수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반미(反美) 에로비디오가 등장하기도 했다. “아직도 많은 이들이 성폭력을 인간에 대한 고문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남성 공동체의 명예 훼손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강간당한 여성은 그녀가 속한 남성 공동체가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피해를 숨기고 침묵해왔다. 침묵 당함은 또 다른 폭력이다.”<sup>21)</sup> 가부장제사회에 의해 “침묵 당함”의 폭력을 입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와 요코는 젠더(gender)의 동족이다. 일본군 위안부의 증언권이 인간의 당연한 권리라면, 요코에게도 침묵을 거부하고 자기의 피해 사실을 증언할 권리가 있을 터이다.

여덟 번째, 전쟁의 진행 상황과 종전(終戰) 소식에 대한 요코네와 숙안

20) 정희진, 『쿠르드 소녀의 고통』, 한겨레신문 6월 29일자 기사.

21) 같은 곳.

네의 반응은 당연히 정반대이다. 도쿄 폭격 등으로 전세가 일본에 불리하게 전개된다는 소식은, 요코네 가족의 위기감을 증폭시키는 동시에 숙안네 집안사람들에게는 죽음 같은 어둠 속에서 붙드는 마지막 희망이 된다. 종전 소식이 요코네 집안에는 폐허와 절망으로, 숙안네 집안에는 기쁨과 희망으로 전달됨은 물론이다.

이후 번째, 종전 후 일본인 귀국 행렬에 대한 한국인의 보복행위 문제는 윗킨스와 최숙렬의 작품에서 전혀 다르게 서술되어 있다. 윗킨스의 작품에서는 한국인의 보복 폭력으로 요코네 세 모녀와 히데요 등이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이지만, 최숙렬의 작품에서는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는 일본인과 그들을 보호하는 일본 경찰이 득실”(136쪽)거리는 바람에 오히려 숙안 남매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일본군경이 뻔뻔스럽게도 “칼과 총을 차고 사방에 진을 치고 있으니 그자들은 지금도 여차하면 서슴지 않고 조선인들을 죽일 것이다. 일본군과 경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본인을 응징하지 못하는 좌절감은, 그동안 안락을 누린 친일파 조선인에 대한 복수로 나타났다.”(137쪽) 사료에 따르면, 전쟁이 끝났는데도 무장해제를 하지 않은 일본군경과 분노한 조선인들 사이에 충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한반도 전역에 걸쳐 귀환하는 일본인에 대한 조선인의 광범위한 보복행위가 존재했다는 것도 사실이다.<sup>22)</sup>

마지막으로 역사의식의 측면에서 볼 때, 『요코 이야기』는 세상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전쟁과 피란, 수난과 극복의 서사라는 보편주의적 의의를 취하면서 동아시아의 역사적 문맥을 소거한다. 요코의 아버지가

22) 한국역사교과서연구회와 일본역사교육연구회가 공저한 『한일 교류의 역사—선사부터 현대까지』, 제11장의 제1절 『일본의 패전과 한반도의 해방』 참조. “공문서, 일본 관리 및 일본인 피난민들의 증언을 종합해보았을 때, 90만 일본 피난민들 중 3만~9만 명이 희생되었으며, 살인, 강간, 약탈이 존재했다는 것”도 사실로 추정되고 있다. 박세정, 『요코 이야기, 가해/피해를 둘러싼 기록의 정치학』, 『요코 이야기, 외전 만들기』 웹 사이트에서 인용. [http://lateralyk.egloos.com/1419380#1419380\\_1](http://lateralyk.egloos.com/1419380#1419380_1).

만주국에서 복무하고 요코네가 조선 땅 나남에서 사는 이유는 서사 속에서 해명되지 않고 그저 원래부터 그랬던 것으로 치부된다. 요코네 세 모녀가 집안의 남자들과 달리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갈망하는 쪽이기는 하지만, 소시민적 가족주의에 침윤된 그들의 평화주의는 종종 자의식 없이 제국주의 전쟁에 협력하는 결과를 낳는다. 요코는 가족주의의 틀 안에서 오빠와 아버지를 사랑하고 걱정할 뿐, 그들이 동아시아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에 대한 자의식은 전혀 내보이지 않는다. 반면, 『떠나보낼 수 없는 세월』은 숙안네 집안의 오늘이 역사적·지리적으로 상황화된(situated) 것임을 누누이 되짚는다.

“너희는 우리 집안 내력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것은 내가 가르쳐 준 역사 이야기나 너희 엄마가 가르쳐 준 성경 이야기 못지않게 중요한 거야. 큰손자들이 모두 징용에 끌려가 버렸으니 남은 건 어린 너희 둘뿐이다.”

할아버지는 또 눈을 감으셨다. 할아버지는 흠이불 속에서 팔을 꺼내 두통을 진정시키시려는 듯 머리칼을 쓰다듬으셨다.

엄마가 다가와서 할아버지 손을 잡으시며 물었다.

“왜요, 아버님? 어떻게 해 드릴까요?”

“내가 들을 수 있을 때, 이 애들에게 우리 집안 얘기를 해 줘라. 옛날 사진도 보여 주고. 네가 이 애들에게 집안 내력을 얘기해 주는 걸 듣고 싶다.”(62쪽)

죽음을 앞둔 할아버지의 명에 따라 엄마는, 일제가 저지른 한국어·한국문화 말살 정책, 창씨개명, 끔찍한 고문과 학살, 부모가 만주에서 벌인 독립운동 등 민족과 집안의 내력을 숙안 남매에게 이야기해준다. 『요코 이야기』나 『떠나보낼 수 없는 세월』은 ‘허구화된’ 자서전이다. 요네야마는 자전소설이 증언이나 수기와는 엄연히 구별되는 문학 장르이기 때문에, “증언이나 수기와 같은 장르에는 요구되지 않는 것, 즉 한 개인의 체

험을 넘은 커다란 역사의 맥락에 대한 언급이나 이해, 역사의 비판적 검토나 성찰 같은 것이, 그 우열의 평가나 심미적 가치와는 별도로 텍스트에도 저자에게도 요구”<sup>23)</sup> 된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요코 이야기』의 몰역사적 보편주의는 충분히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떠나보낼 수 없는 세월』의 역사적 소명의식은 긍정적으로 평가 받을 만하다. 그러나 그 소명의식이 발휘되는 방식은 어디까지나 소설적이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엄마가 무려 7쪽에 달하는 설명 투의 역사 계몽을 펼칠 때보다는, 숙안이 늘 버선을 신고 있어서 몰랐던, 발톱이 하나도 없는 할아버지의 발을 닦아주며 일제의 행악(行惡)을 스스로 발견할 때가 훨씬 더 깊은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 3. 인정 투쟁으로서의 기억 서사와 서사적 ‘완결’에의 욕망

#### 3.1. 모델 마이너리티의 인정 투쟁

남다른 체험을 겪은 사람은 증언에의 욕망을 느끼기 마련이다. 그러한 증언 욕망의 소산으로 과거형으로 길들여져 언어화한 체험이 기억 서사이다. 제3세계 페미니즘 사상을 연구하는 일본인 학자 오카 마리는 『기억·서사』에서 증언 욕망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한다.

‘사건’의 기억은 어떻게 해서든지 타자, 즉 ‘사건’의 외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집단적 기억, 역사의 언설을 구성하는 것은 ‘사건’을 체험하지 않은 살아남은 자들, 타자들이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에게 그 기억이 공유되지 않으면, ‘사건’은 없었던 일로 되어 버리고

23) 요네야마, 『일본 식민주주의의 역사기억과 아시아계 미국인』, 『한일 역사인식 논쟁의 메타히스토리』, 뿌리와이파리, 2008, 334쪽.

만다. 일어나지 않았던 일로 되어 버린다.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의 존재는 타자의 기억 저편, ‘세계’의 외부로 내던져지게 되어 역사로부터 망각된다.<sup>24)</sup>

사건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외부의 타자와 나누려는 욕망이 구체화되는 때는 대개 외부로부터 강력한 계기가 주어지는 시점이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과거에 대해 ‘회상적으로 이야기’하는 환자에게 증상(症狀)을 가져다주는 것은 과거의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후적인 사건이다.<sup>25)</sup>

『요코 이야기』 서문을 보면, 그 사후적 사건은 작가가 잘 아는 응석반이 미국 소녀가 음식과 옷이 넘쳐나는 호화로운 집에 살면서도 투정을 부리는 상황으로 드러나 있다. 윗킨스는 소녀에게 소녀가 가진 것들과 인생에 감사하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비참한 전쟁의 한가운데에 내던져지고서도 꾀꿉이 살아남은 작가 자신의 생존기를 들려주고 싶어진다. 당연히도 작가는 전쟁이 소녀에게 부과하는 갖가지 참상을 열거하고 그 참상들 하나하나에 맞서 쟁취하는 어린 주인공의 영웅적 승리에 초점을 맞춘다. 한편, 『떠나보낼 수 없는 세월』의 기억 서사를 추동한 사후적 사건은, 『요코 이야기』가 영어권 출판 시장에서 성공하고 초중등학교의 교재로 채택되어 많은 영어권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현실이다. 미국의 공·사립학교에서 이십 년간 역사교사로 재직할 최숙렬에게 『요코 이야기』에서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왜곡되고 삭제된 한국 역

24) 오카 마리, 『기억 서사』, 김병구 역, 소명출판, 2004, 147쪽.

25) 프로이트에 의하면, 아주 어린 시절에 대해 우리는 진정한 기억을 갖고 있지 못하며 사후적으로 수정된 기억 흔적을 가진다. 기억 흔적으로 존재하던 소재는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관계에 따라 ‘재조정’되고 ‘재기록’된다. 과거는 현재/미래에 의해 만들어지고 씌어지는 바, 모종의 기억이 억압되고 그것이 ‘사후성’에 의해 트라우마로 바뀌는 것은 흔히 벌어지는 일이다. 김현진, 『기억의 허구성과 ‘서사적 진실’』, 독일언어문학 제22집, 321~346쪽 참조.



사를 바로잡고자 하는 소명의식은 고통스런 과거를 구태여 되살려 자전 소설을 쓰게 한 원동력이 된다.

기억 서사는 가공 작업으로서의 기억 행위에 의해 사후적으로 제작된 과거이다. 작가는 과거를 서사 텍스트로 제작함으로써 현재적 주체를 재구성하려 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과거의 사건 자체보다 작가의 현재성이 텍스트로서의 과거에 부여하는 의미작용이다. 『요코 이야기』와 『떠나 보낼 수 없는 세월』의 경우, 증언 욕망을 촉발시킨 사후적 사건과 주체의 현재적 상황은 2차대전 승전국으로서 세계 최강의 국가를 건설해온 미국이라는 자본주의 다인종사회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요코 가와시마 윗킨스는 일본계 결혼이민자 미국인이며, 최숙렬은 한국계 이민 1세대 미국인이다. 요코 가와시마 윗킨스의 ‘윗킨스’<sup>26)</sup>, 최숙렬의 ‘최’<sup>27)</sup>는 이 두 작가가 지닌 이산인(離散人)의 기표이다. 윗킨스는 미국이라는 풍요자본주의사회에서 만족과 감사를 모르고 성장하는 미국 아동청소년이라는 독자층을 설정하고, 그 대척점에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오가며 갖은 고생을 다 겪고도 마침내 살아남은 2차대전 패전국 소녀로서 어린 요코를 내세운다. 작가 요코가 그려내는 어린 요코의 행로는, 손종업이 말한 대로 “태평양전쟁에 대한 미국인의 심상지리가 어떠한 것인지를 환기시켜준다.”<sup>28)</sup> 미국인들, 그리고 일본인들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핵폭탄의 섬광에 눈이 멀었다. “태평양전쟁에 관한 미국인들의 심상지리 속에 한국은 마치 여백과 같다. 그들은 오로지 일본제국과 전쟁을 치렀을 뿐이다. 그리고 역사상 처음으로 원자폭탄을 투하했다. 그 전쟁의 끝은 공산주의와의 전쟁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소설 『요코 이야기』는 바로 이렇게 미국

26) 교토대학 영문학과를 졸업한 뒤 미군 기지에서 통역관으로 근무하던 요코 가와시마는 미군과 결혼하여 미국으로 이주했다. ‘윗킨스’는 남편의 성이다.

27) 최숙렬의 한국식 본명은 박숙렬이다. ‘최’는 남편의 성이다.

28) 손종업, 앞의 글, 355~6쪽.

인들이 상상하는 태평양전쟁을 구체화한다.”<sup>29)</sup> 윗킨스가 소설로 형상화한 자기 삶의 심상지리(imagined geographies)가 미국인들이 상상해온 태평양전쟁의 심상지리와 맞아떨어짐으로써 『요코 이야기』는 미국 교육 제도가 인정하는 정전(正典)의 자리를 확보한다.

『요코 이야기』에서 전쟁이란 곧 진주만 이후의 태평양전쟁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소설에서 일본의 전쟁도발 책임에 대하여 문제제기하는 곳은 다음에 인용된 한 부분뿐이다.

드디어 어머니가 화를 내기 시작했다.

“우리나라가 전쟁을 일으키려고 진주만을 공격한 건 하나도 잘한 것이 아니냐. 우리 정부가 내렸던 이 결정에는 아버지도 동의하지 않으신다.”

어머니의 음성이 점점 더 떨리기 시작했다.

“전쟁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있잖니. 평화라든지 사랑, 행복 같은 것들 말이다. 남편이나 아들을 잃느니, 차라리 우리나라가 지는 걸 보는 편이 낫겠다!”(40쪽)

즉 일본이 러시아, 중국 등과 벌인 제국주의 전쟁, 조선을 식민지화하고 조선 항일세력을 말살하기 위해 벌인 수많은 전쟁은 『요코 이야기』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다. 미국인들 또한 자기들이 관여한 전쟁에서 일본을 불쌍한 패전국으로 자리매김하는 쪽이 “미국의 사회나 문화의 일원성과 기성질서를 뒷받침”<sup>30)</sup>하기에 좋다고 판단한다. 최숙렬은 바로 그 지점에서 기억의 전쟁을 시작한다. 윗킨스와 미국이 보지 못하거나 드러내지 않는 한반도에서의 또 다른 전쟁을 증언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이야말로 역사 교사 최숙렬을 소설가로 탈바꿈시킨 원동력인 것이다. 최숙렬은 한반도에서의 식민지/피식민지, 가해/피해 사실을 열거하고 되새기는

29) 같은 곳.

30) 요네야마, 앞의 글, 338쪽.

방식으로 우리나라 사람의 전형적인 심상지리를 직조한다. 최숙렬의 기억 서사 속에서 일본제국주의는 불법 강점, 고문, 학살, 위안부 강제동원 등 갖은 악행을 저지른 명백한 가해자, 한민족은 일제로부터 억울하기 짝이 없는 피해를 당하면서도 끈질기게 저항한 피해자로 재생된다. 그러나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는 최숙렬의 대항서사도 반공산주의(反共產主義), 미국에 대한 호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요코 이야기』와 다를 바 없다. 오히려 종전 이후 일본에서의 정착생활을 다룬 『요코 이야기』 후 반부와 달리 소련 군정 치하 북한에서의 삶이 서술된 『떠나보낼 수 없는 세월』의 후반부가 반공(反共)·반소(反蘇) 이념에는 더욱 철저하다. 결국 『요코 이야기』와 『떠나보낼 수 없는 세월』은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미국 주류 사회의 인정을 간절히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사실상 공통점이 많은 기억 서사이다. 바꿔 말해 윌킨스와 최숙렬, 두 아시아계 미국인 ‘모델 마이너리티’<sup>31)</sup>들이 호출하고 제작한 모범적이고 상식적인 텍스트인 이 자전소설들의 배후에는 ‘정의롭고 선한 미국’, ‘악의 기원 공산주의’라는 서사가 이미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다.

### 3.2. 서사적 ‘완결’에의 욕망과 그 잉여

오카 마리는, 스티븐 스피버그의 『선들러 리스트』, 『라이언 일병 구하기』 등의 작품에서 매우 리얼하게 재현된 사건이 사건의 ‘잉여’를 부인함으로써 오히려 리얼리티로부터 멀어지는 역설을 설파한다.

스피버그가 묘사한 전쟁터의 장면은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것, 즉 작렬

31) ‘모델 마이너리티’란, 디아스포라·소수민족으로서 제국의 중심을 욕망하고 어느 정도 중심에 다가서는 데 성공한 마이너리티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강진구, 『제국을 향한 모델 마이너리티(model minority)의 자기 고백 : 고려인 디아스포라 문학의 특징』, 『현대문학의 연구』, 29호. 178~179쪽.

하는 포탄, 사지가 잘려나가는 병사, 자욱이 회오리쳐 오르는 분진..... 등 등 재현할 수 있는 것만 재현할 수밖에 없다. 설명할 수 없는 사건, 억압된 기억은 등장하지 않는다. 마치 그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건의 ‘리얼리티’란 바로 리얼하게 재현된 ‘현실’로부터 넘쳐 흘러난 곳에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물음은 스피버그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가 박진감 넘치는 리얼리즘으로 전쟁터를 재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그와 같은 물음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sup>32)</sup>

오카 마리는 스피버그의 리얼리즘 욕망이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사건’, 그렇기 때문에 재현 불가능한 ‘현실’이나 ‘사건’의 잉여 그리고 ‘타자’의 존재를 부인하는 행위와 결부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 『원더풀 라이프』에 대해서도 “작품과 ‘타자’가 맺는 관계가 전후 일본 사회와 ‘타자’가 맺는 관계를 리얼하게 표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내셔널한 경험, 타자의 존재와 ‘사건’의 존재를 부인하는 내셔널한 욕망과 결코 무연하지는 않은 것”<sup>33)</sup>이라 본다.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차를 마시면서 나누던 사적 경험으로서의 전쟁 이야기가 국가에 의해 일어난 전쟁이 악한 것이었음을 말하고는 있으나 “전쟁에서 부조리한 죽음을 당한 자들, 전쟁이라는 ‘사건’의 폭력을 현재의 서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타자의 존재를 상기하게 하는 계기를 빼트리고, 자신의 피해만을 기억하고 상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화 <원더풀 라이프>와 마찬가지로 전후 일본 사회의 내셔널한 경험 그 자체를 반복하고 있으며 타자의 부인이라는 내셔널리즘적인 욕망, 그리고 내셔널리즘 자체를 분유하고”<sup>34)</sup> 있다고 날카롭게 분석한다.

윌킨스와 최숙렬의 작품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사건, 억압된 기억은

32) 오카 마리, 앞의 책, 79~80쪽.

33) 오카 마리, 『기억 서사』, 김병구 역, 소명출판, 2004, 143쪽.

34) 위의 책, 144쪽.

등장하지 않는다. 마치 그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요코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별, 상실, 강간 위협, 빈곤과 떠돌림은 모두 최후의 승리를 위하여 적층(積層)되는 수난(受難)의 화소들이다. 그리고 그 화소들은 슬프거나 잔인하거나 끔찍하거나 감동적인 장면 묘사의 뒷받침을 받아 실제처럼 생생히 형상화된다. 가령, 죽은 아이를 기차 밖으로 던지고 자기도 투신해 버리는 여자, 강간 위협을 당하는 순간에 때맞춰 “작렬하는 포탄, 사지가 잘려나가는 병사, 자욱이 회오리쳐 오르는 분진……”, 한겨울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다니며 겨우 모은 돈으로 언니를 위해 차(茶) 한 봉지를 사는 눈물겨운 우애, 결말 부분을 훌륭히 장식하는 오빠와의 드라마틱한 상봉 등은 예외 없이 이 작품의 서사적 완결성에 기여한다. 그러나 이러한 서사적 ‘완결’에의 욕망은, 적의 전쟁에 강제 동원되었던 조선인 성노예, 학도병과 같은 타자와 부조리한 사건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진실이 작가가 재현한 현실 너머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용납하지 않는다. 결국 완결된 서사에의 욕망은 내셔널 히스토리(內史)의 타자를 배제함으로써 쉽사리 ‘과거의 청산’, ‘과거의 극복’<sup>35)</sup>을 말하는 권력 가진 자들의 내셔널리즘을 위해 복무한다.

윌킨스는 어린 요코의 근시안을 가장(假裝)하여 숨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적 체험에 대한 증언이 타자의 존재와 사건의 실상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부단히 역사적 책임을 물었어야 했다. 내셔널 히스토리의 타자를 부인하는 것은 『떠나보낼 수 없는 세월』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일본인 여성이라고 해서 모두 나리타 선생처럼

35) 재일 조선인 2세 서경식과 타카하시 테츠야는 권력자들이 쉽게 내뱉는 ‘과거의 청산’, ‘과거의 극복’이라는 말에 내포된 폭력성을 비판한다. “역사는 책의 페이지를 넘기듯이 갱신해 가는 것이 불가능”하고 “제아무리 국가 권력이라고 해도 있었던 것을 없었던 일로 할 수는 없는 법”이기 때문이다. 서경식·타카하시 테츠야 공저, 『단절의 세기 증언의 시대 : 전쟁의 기억을 둘러싼 대화』, 김경윤 역, 삼인, 2002위의 책, 43쪽.

무자비하고 혐오스러운 군국주의자였을까. 젠더의 지평에서 바라볼 때는 오히려 더 많은 일본인 여성들이 조선인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가부장제 군국주의 전쟁의 희생자였을 것이다. 귀환 길 일본인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도 능히 일어났을 법한 일이다. 종군 ‘위안부’ 중에는 일본인 여성도 적지 않았다.<sup>36)</sup> 또한 내선일체 정책의 결실로 조선인 남자와 혼인하였다가 종전 후 한국에 남은 일본인 처(妻)들도 우리 사회의 배타적 민족주의가 오래도록 외면해온 타자이지 않은가. 나의 서사적 ‘완결’에의 욕망이 무엇에 기여하는지, 나의 서사가 추방한 사건의 잉여는 무엇인지, 여러 모로 고민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 4. 맺는 말 : 타자의 부름에 대한 응답의 책임

자서전을 쓴다는 것은 기억 행위에 의해 트라우마를 불러일으키는 원초적 장면을 언어화함으로써 현재적 주체를 재구성하려는 노력의 일종이다. 박완서가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의 전편 격인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의 마지막 진술에서 “그래, 나 홀로 보았다면 반드시 그걸 증언할 책무가 있을 것이다. 그거야말로 고약한 우연에 대한 정당한 복수다. 증언할 게 어찌 이 거대한 공허뿐이랴. 벌레의 시간도 증언해야지. 그래야 난 벌레를 벗어날 수가 있다.”<sup>37)</sup>고 한 것도, 기억 행위에 의한 존재론적 재생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다시 말해 작가는 벌레의 시간을 증언함으로써 벌레를 벗어나 인간적 자아를 재구성하고 싶은

36) 스키 유코는, 그들이 국가 성폭력의 희생자라는 점에서 식민지 출신 ‘위안부’들과 같은 처지였으나, 상대적으로 좋은 대우를 받았고 다른 ‘위안부’들을 감시·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일제(日帝) 팽창주의의 협력자이기도 했다고 본다. 안연선, 『성노예와 병사 만들기』, 삼인, 2003, 70쪽 참조.

37) 박완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웅진씽크빅, 2004, 282쪽.

것이다. 박완서의 자전소설은 ‘나는 별레였다’ 라는 도저한 환멸을 담아 치열한 자기 해부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오히려 ‘별레의 시간’에서 해방되는 역설을 보여준다.

『요코 이야기』에서는 자기/일본인/일본제국을 향한 환멸과 해부를 찾아볼 수 없다. 자기를 환멸하지 않고 해부하지 않았다고 어린 요코를 비판할 수는 없다. 비판받아야 하는 쪽은 ‘삶의 환상’ 가운데에서 순진무구한 요코를 호출함으로써 자기 환멸과 해부 없이 오직 순진무구함으로 현재의 정체성을 재구성하려는 작가 윗킨스이자 피해자 민족주의에 젖어 있는 일본인들이다. 또한 우리가 『요코 이야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지점은, 작가가 제작한 특유의 ‘서사적 진실’에 실화의 아우라(aura)를 덧입혀 공교육 교재로 채택함으로써 ‘서사적 진실’을 일종의 ‘객관적 사실’로 어린 독자들에게 확신시키는 미·일 동맹의 성격과 정신이다.

앞서 인용한 서경식과의 대답에서 타카하시 테츠야는 일본인의 전후 책임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응답할 수 있는(responsible) 존재이며, 응답 가능성(responsibility)으로서 책임의 내부에 놓여진 존재이다. 타자의 부름에 대한 응답은 인간관계를 만들어내고 유지하며 새롭게 만드는 행위이자 타자와의 기본적인 신뢰 관계를 확인하는 행위이다.” 타자의 부름에 대한 응답의 책임에는 “국경이라든지 그 밖의 어떠한 경계도 없다.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한, 또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이러한 책임은 생겨난다.”<sup>38)</sup>

『요코 이야기』는 전쟁의 역사를 모르는 미국의 부유한 소녀에게는 감동을 주는 응답일 수 있겠지만, 여전히 전쟁의 폭력을 현재의 서사로 살아가는 수많은 아시아인들의 부름과 호소에는 무책임한 응답이다. 『떠나

38) 서경식·타카하시 테츠야 공저, 앞의 책, 101~2쪽.

보낼 수 없는 세월』 또한 기록치 않은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민족 주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대항서사로서 여러 측면에서 『요코 이야기』의 한계를 닮아 있다.



## □ 참고문헌

### 1. 단행본

- 박완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웅진씽크빅, 2004, 282쪽.
- 서경식·타카하시 테즈야 공저, 『단절의 세기 증언의 시대 : 전쟁의 기억을 둘러싼 대화』, 김경운 역, 삼인, 2002, 1~208쪽.
- 안연선, 『성노예와 병사 만들기』, 삼인, 2003, 70쪽.
- 오카 마리, 『기억 서사』, 김병구 역, 소명출판, 2004, 1~208쪽.
- 요코 가와시마 윗킨스, 『요코 이야기』, 윤현주 역, 문학동네, 2006, 1~294쪽.
- 최숙렬, 『떠나보낼 수 없는 세월』, 다섯수레, 2006, 1~253쪽.
- 최정희, 『인간사』, 『정통한국문학대계』, 어문각, 1996, 154쪽.
- ‘한일, 연대 21’ 엮음, 『한일 역사인식 논쟁의 메타히스토리』, 뿌리와 이파리, 2008, 271~344쪽.
- Choi, Sook Nyul, *Year of impossible goodbyes*, Houghton Mifflin Books for Children, 1991, pp.1~176.
- Watkins, Yoko Kawashima, *So far from the bamboo grove*, Beech Tree, 1994, pp.1~183.

### 2. 논문·비평·서평

- 강진구, 「제국을 향한 모델 마이너리티(model minority)의 자기 고백: 고려인 디아스포라 문학의 특징」, 『현대문학의 연구』 29호, 178~179쪽.
- 김현진, 「기억의 허구성과 ‘서사적 진실」, 『독일언어문학』 제22집, 321~346쪽.
- 박령, 「텍스트 속의 삶 대(對) 서구 자서전 문학이론 연구」, 『영어영문학』 제42권 2호, 419~438쪽.
- 박정애, 『『요코 이야기』와 기억의 전쟁』, 『플랫폼』 2007년 7·8월호(통권 4호), 41~42쪽.
- 손종업, 『『요코 이야기』가 불편한 몇 가지 이유』, 『창작과 비평』 2007년 여름호, 343~356쪽.
- 이주영, 「역사를 다루는 어린이문학의 책무성」, 『우리교육』 2007년 3월호, 98~101쪽.

리자 요네야마, 『폐허로부터-기억의 정치를 조명하며-』, 『민주주의와 인권』 제4권 1호, 108~110쪽.

### 3. 신문 기사

2005년 5월 11일자 한겨레신문 기사. 정희진, 『쿠르드 소녀의 고통』.

2007년 2월 3일자 중앙일보 기사, 『‘요코 이야기’ 저자 일문일답』.

2007년 4월 9일자 The Korea Herald 기사, 『Victimhood nationalism: compelling or competing?』

2008년 10월 23일자 아시아투데이 기사, 『한국인들이 일본 부녀자를 강간했다?』.

### 4. 웹 사이트

[http://nownforever.co.kr/bbs/zboard.php?id=0\\_news&no=286](http://nownforever.co.kr/bbs/zboard.php?id=0_news&no=286).

<http://lateralyk.egloos.com/1343048>.

[http://lateralyk.egloos.com/1419380#1419380\\_1](http://lateralyk.egloos.com/1419380#1419380_1).

##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subject of 'memory' in *So far from the bamboo grove* and *Year of impossible goodbyes*

Park, Jeong-ae

Desire to restructure memory matrix with searching the past memory marks usually rises to surface by some 'ex post facto matter. In the case of *So far from the bamboo grove*, it is found out, as the writer Yoko Kawashima Watkins says in a preface, that she came to know a pampered American girl who was so peevish although living affluently in a gorgeous house. Watkins wanted to tell that girl her own story of survival from the bottom of the bottom in the maelstrom of World War 2. Necessarily she focused the gendered wretched spectacles of war and the victory of young courageous girl, passing over the Japanese historical responsibility in the East Asia. However, we should remember the eleven-year-old heroine Yoko is not the girl who were in the whirlpool of war but a character to be created through a 'revolving door' of memory by Japanese-American writer Watkins. As the act to remember is done in the nowness of time and space, the past remembered is to be 'produced' by the remembering subject. The World War 2 is over more than 60 years ago, but the war of memory is not over.

On the other hand, the 'ex post facto matter to give rise to memorizing motive to Sook Nyul Choi, the writer of *Year of impossible goodbyes* is the situation that *So far from the bamboo grove* is chosen as school textbook for young children in America. So the plot of *Year of impossible goodbyes* is to be woven with memory materials of national sufferings and resistance, confronting those of Yoko.

In short, *So far from the bamboo grove* can be told to be an irresponsible answer to call of a great many Asian who survive past violences of war but live as painfully as ever. So is *Year of impossible goodbyes*, In spite of a few precious merits. *Year of impossible goodbyes* resembles *So far from the bamboo grove* in that it is based on victimhood nationalism, too.

**Key words** : Yoko Kawashima Watkins, *So far from the bamboo grove*, Sook Nyul Choi, *Year of impossible goodbyes*, autobiographical novel, Desire to restructure memory matrix, memory, confronting memory, memory narrative, nationalism, victimhood nationalism, gender, other, responsibility

- 본 논문은 4월 30일에 접수되어 5월 11일부터 27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5월 30일에 게재 확정되었음.